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 수용성 연구

김혜림*·강경아·신다영
(이화여대)

1. 서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여행 중 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는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근 외국에서 출간된 한국 안내 책자의 부실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¹⁾ 특정 지역 관광 안내 책자는 그 지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잠재적 여행자 혹은 현재 그 지역을 방문 중인 관광객들이 여행계획 수립에 참고하는 중요한 정보 제공원 기능을 한다. 대개 관광객들은 책자의 정보에 근거해 방문 장소를 선별하고, 방문 경로를 계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출간된 한국 관광 책자 정보에 대해 많은 외국인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여행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부족, 번역 오류, 최신 정보의 누락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나 그 중에서도 번역상의 문제가

주요 원인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2017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에서는 ‘여행 유형’ 항목에서 개별 여행(82.8%)의 비중이 단체여행(11.6%), 에어텔(5.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16년 개별 여행 비중(67.4%)에 비해서도 훨씬 더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 개별자유여행객(FIT, Free Independent Tourism)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한국 관광문화 용어의 번역 실태 점검이 절실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여행사가 정해놓은 일정으로 안내자의 인솔하에 진행되는 단체 패키지여행과는 달리 개별여행객은 직접 여행정보를 수집하고 노선을 짜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검색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여행 단계에 입수하고, 활용하게 될 여행 책자, 관련 인터넷 사이트/모바일 앱²⁾ 등이 관광 정보 제공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지 관광객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광 관련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한 기존 번역학계 선행연구들은 주로 누리집, 안내 책자, 리플릿, 안내판 등의 매체상에 실린 다양한 관광지 관련 텍스트들을 문화소³⁾ 번역 전략, 번역 오류 등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문화소 관련 연구 중에서도 한국 내 명소 및 시설을 지칭하는 관광용어들을 대상으로, 그 현황을 심도 있게 다룬 논문은 소수이다.⁴⁾

이에 따라 대표성 있는 한국 고유의 관광용어들을 추출해 그 번역 현황을 심도 있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기관 차원에서 공공용어 번역 통일을 위한 표준안 및 지침⁵⁾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들 방침이 국내외에서 효율적

- 2) ‘2017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한국 여행정보 입수 경로’는 ‘인터넷’(71.8%)이 가장 높고, 다음은 ‘친지/친구/동료’(63.9%), ‘여행사’(2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 3) 한센(Hansen)은 ‘문화소’를 어느 특정의 상황에서 특정의 이해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행위를 유발시키는 어느 언어권의 모든 문화적, 사회-경제적 소여성을 일컫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언어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어 문화권에 나타나지만 역어 문화권에는 알려지지 않거나 다르게 정의된 비언어적 현상, 제도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김효중, 2004: 37).
- 4) 관광문화 용어를 문화소 번역의 부등성 문제와 연계해 그 극복전략을 제시한 연구로는 김도훈(2006), 정일영/정의상(2011), 권인경(2013), 금지아(2018)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금지아(2018)의 연구는 중요무형문화재 130건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본 논문의 주저자임.

1)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서울 메이트’(tvN) 등.

으로 보급, 적용되고 있는지, 현지 수용자의 반응이 어떠한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을 소개하는 국내외 한국 관광 안내 자료 내에 수록된 관광용어 번역어에 대한 수용성을 검증하고 올바른 번역안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주요 관광문화 용어를 대상으로 한 공공 번역 수용성 연구 사업⁶⁾>을 발주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관광문화 용어를 대상으로 한 공공 번역 수용성 연구 사업>을 토대로 한국을 소개하는 국내외 한국 관광 안내 자료 내에 수록된 관광용어 중국어 번역안에 대한 수용성을 검증하고 올바른 번역안을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첫째, 외국 현지 발간 한국 관광 안내 책자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책자 및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의 주요 관광문화 용어 번역안을 수집하여 용어 DB를 구축하고 번역 실태를 분석할 것이며 둘째, 실태분석 결과에 착안하여 현지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점검을 위한 본 조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번역안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표준 번역 원칙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번역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관광문화 용어 DB 구축

2.1 DB 구축 과정

본 연구는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최다 판매 서적 가운데 아래 한국 전역의 관광지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5권의 서적

- 5) 2015년 12월 29일 문체부 훈령 279호로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이 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서울시,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도로, 관광 안내용어 번역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용어 용례사전>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 6) 이화여자대학교 산학연구팀이 본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자는 본 과업의 책임 및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본 과업은 관광문화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과 수용성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되었다.

을 분석 대상 외국 현지 발간 관광 안내 책자로 선정하였다.

〈표 1〉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제목	출판연도	저자
1	Lonely Planet 孤独星球:韩国(2016年版)	2017	澳大利亚Lonely Planet公司
2	Lonely Planet 孤独星球:首尔	2015	澳大利亚Lonely Planet公司
3	韩国自助游	2016	墨刻编辑部
4	零元游韩国	2017	《亲历者》编辑部
5	全球最美的地方特辑:韩国	2013	《图行世界》编辑部

관광 안내 책자의 표제어를 중심으로 용어를 추출한 후, 한국관광공사의 홍보 책자 및 누리집, 관련 지자체/기관/기업 누리집, 문화재청 누리집의 번역어도 함께 수집하여 용어 DB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행정구역명을 제외한⁷⁾ 총 1,251개의 관광문화 용어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이를 관광지(726개), 생활 정보(119개), 음식(291개), 체험(115개) 등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 번역어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용어 번역에 사용된 번역 전략을 살펴보고 아래와 같이 유형화하였다.

〈표 2〉 관광문화 용어 번역에 사용된 번역 전략

영문표기	영문 표기를 그대로 영문으로 표기 (ex. 굿스테이→Goodstay)
음역	한국어 발음에 따라 그 발음과 유사한 중국어 문자로 표기 (ex. 오메기→五梅气)
직역	한자가 있는 한국어 어휘를 그대로 한자로 전환하여 번역 (ex. 백마강→白马江)
의미역	한국어 표현 자체의 의미를 일반화 또는 풀어서 설명하거나 의미를 첨가하여 번역 (ex. 국화빵→红豆花形烧)
대응역	중국어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로 대체하여 번역 (ex. 카페거리→咖啡街)
혼합역	다양한 전략을 두 가지 이상 활용하여 번역 (ex. 광주비엔날레→光州双年展)

- 7) 행정구역명은 기존에 이미 번역안이 마련되어 활용되고 있으므로 DB 구축에서 제외하였다.

2.2 기존 번역어 문제점 분석

구축된 관광문화 용어 DB의 표제어 중 919개⁸⁾ 표제어를 대상으로 기존 번역어의 문제점을 분석해본 결과, 총 137개의 문제 사례(14.91%)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사례는 다시 ① 일관성 결여, ② 어색하거나 난해한 표현 또는 고유성 상실 등의 표현상의 문제, ③ 의미전달 실패, ④ 정보의 축소 또는 부정확한 정보의 삽입으로 인한 정보성 문제와 ⑤ 단순 오류 등 5가지 유형으로 수렴된다.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총 89개 사례로 전체 문제 사례 중 64.96%를 차지했다. 이는 다시 동일 표제어에 대해 중국어 표기가 제각각인 경우(ex. 판소리→盤索里/板索里)와 표현 방식이 다양한 경우(ex. 절두산순교성지→切头山忠烈祠/切头山公园/切头山殉教圣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관성 결여 양상을 보이는 표제어에 대해서는 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복수 번역어의 수용도와 적절성을 검토하여 권고안을 마련해보기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표현상의 문제가 총 22개로 전체 문제 사례의 16.06%를 차지했으며 그 중 대응역 처리 결과로 인하여 고유성이 퇴색(ex. 방짜유기박물관→方字黄铜器博物馆⁹⁾)하거나 정보가 왜곡된 사례(ex.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釜山电影摄影工作室¹⁰⁾), 표현 자체가 어색한 사례(ex. 땅끝전망대→土末观景台¹¹⁾)가 주를 이루었다. 이와 같은 표제어에 대해서도 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한국적 요소의 고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번역 방안, 정보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

는 번역 방안,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을 개선한 번역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의미전달 실패 사례는 총 13개로 전체 문제 사례의 9.49%를 차지하였으며, 한국식 한자 표현의 직역 처리로 인해 도착어의 의미 전달 효과가 감소한 사례(ex. 민박→民泊, 약령시→药令市, 약전 골목→药廛一条街), 순우리말의 독음을 차용해서 역으로 한자를 조합했으나 음성적 유사성이나 의미적 전달 효과 모두 저하되는 결과를 낳은 사례(ex. 거문오름→拒文岳, 간절곶→艮绝岬), 순우리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원래 의미가 상실된 사례(ex. 셋강 생태공원→河口生态公园¹²⁾)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의미전달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의미 전달의 적절성을 개선한 사례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정보성 문제가 총 4개로 전체 문제 사례의 2.92%를 차지하였으며 정보의 축소(ex. 전주 세계 소리 축제→全州索里音乐节¹³⁾)나 정보 삽입(ex. 거북산→龟船宴制品¹⁴⁾) 결과 오해 유발 소지가 있는 문제 사례가 관찰되었다.

마지막으로, 단순 오류가 총 9개로 전체 문제 사례의 6.57%를 차지하였으며, 잘못된 한자를 사용하거나(ex. 의암호→义岩湖¹⁵⁾) 원어와 다른 대상으로 대응역한 경우(ex. 과주 출판 도시→坡州书城¹⁶⁾) 등이 확인되었다. 이 유형의 경우 명백한 번역 오류가 대부분이므로 ‘과주 출판 도시’만 본조사 표제어에 포함해 수용도를 확인하였다. ‘과주 출판 도시’의 경우, 번역어 ‘坡州书城’의 ‘书城’이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연구진이 이를

8) 최종 DB의 총 1,251개 표제어 중, 음식명(291개)은 국립국어원에 한식명에 대한 선행 연구가 이미 있으므로 문제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음식명을 제외한 960개 표제어 중 지자체나 문화재청의 번역안만 있는 표제어(41개)를 제외한 919개 표제어를 문제점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9) ‘방짜유기’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문화 특유성을 띄고 있지만 이를 중국어에 존재하는 유사 대상으로 대응역하여 고유 의미가 퇴색하였다.

10)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상당히 큰 규모의 실내 세트장인데 반해 ‘摄影工作室’라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번역되어 규모가 훨씬 작게 느껴진다.

11) ‘땅끝전망대’의 ‘땅끝’을 흙 ‘토(土)’자와 끝 ‘말(末)’자로 번역하여 그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땅끝마을’의 의미 전달에도 실패했을 뿐 아니라 중국어로 매우 어색한 표현이 되었다.

12) 우리말의 ‘셋강’은 ‘큰 강의 줄기에서 한 줄기가 갈려 나가 중간에 섬을 이루고, 하류에 가서는 다시 본래의 큰 강에 합쳐지는 강’(네이버 국어사전 참조)을 가리키는 반면, ‘河口’는 ‘강물이 바다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어귀’(바이두 백과 참조)를 가리킨다.

13) ‘세계’라는 정보가 삭제되고 ‘소리(索里)’만이 음역으로 부각됨으로써 축제의 범주가 한국 전통 음악에 국한된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

14) ‘거북산’을 뜻하는 ‘龜船’ 뒤에 ‘복제품(宴制品)’이라는 과잉 정보가 추가되어 관광 명소로서의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15) 올바른 한자 표기는 ‘衣巖湖’이다.

16) ‘과주 출판 도시’의 번역어 ‘坡州书城’의 ‘书城’은 중국어에서 일반적으로 ‘대형 서점’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오류로 분류하였으나, 이 표현의 사전적 정의¹⁷⁾로 미루어 보아 ‘서점’ 이외의 다른 의미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 본조사를 통해 이 번역에 대한 원어민의 수용도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3. 수용성 조사

본 연구는 앞 장에서 기술한 방식으로 관광문화 용어의 중국어 번역어 DB를 구축한 후 기존 번역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조사와 심층조사를 설계하여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주요 한국 관광문화 용어의 중국어 번역안에 대한 수용도를 조사하는 한편 개선 방안에 대한 모국어 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조사와 심층조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3.1 본조사

본조사 대상은 현재 중국 본토와 대만에 거주 중이면서 한국 거주 경험이 없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중 성별, 연령별 분포를 고르게 하여 무작위로 총 100명을 선정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8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총 10일간이며, 조사 방식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조사의 설문 대상 표제어는 기존 번역어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선정되었으며, 하나의 표제어에 하나의 번역어를 제시하여 용어 이해도, 용어 전달성, 표현 적절성을 확인하는 A유형 문항과 하나의 표제어에 복수의 번역어를 제시하여 수용도가 가장 높은 번역안을 확인하는 선다형의 B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7) ‘书城’의 사전적 정의는 ‘一形容书籍很多；或指售卖书籍的场所(책이 아주 많음 혹은 책을 판매하는 장소를 가리킴)’으로, 꼭 서점이 아니더라도 책이 많은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바이두 백과 <https://baike.baidu.com/item/%E4%B9%A6%E5%9F%8E/1220> 참조)

A유형 문항과 B유형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 방식은 아래와 같다.

〈표 3〉 본조사 A, B유형 문항의 질문 방식

구분	내용	문항
A유형	용어 이해도	○○라는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용어 전달성	○○라는 용어가 의미를 전달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표현 적절성	○○ 용어의 표현이 중국어로 자연스럽게습니까?
B유형	선호도	[사진 및 설명 제시] 제시된 관광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가장 적절한 중국어 용어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 ② △△ ③ ○○○ ④ ◇◇

먼저, A유형 문항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 본조사 A유형 문항 조사 결과

(응답자: 100명, 단위: %)

용어	용어 이해도	용어 전달성	표현 적절성
땅끝전망대(土末观景台)	43.0	76.0	63.0
명동성당(明洞圣堂)	63.0	90.0	85.0
황학동도깨비시장 (黄鹤洞小鬼市场)	58.0	74.0	67.0
세빛섬(人工浮岛“三岛”)	72.0	90.0	89.0
외도보타니아(外岛海上农园)	77.0	90.0	90.0
간절곶(艮绝岬)	45.0	64.0	59.0
부산 영화촬영 스튜디오 (釜山电影摄影工作室)	95.0	97.0	95.0
서래마을(瑞来村)	65.0	62.0	61.0
마사박물관(马事博物馆)	80.0	91.0	94.0
과주출판도시(坡州书城)	87.0	90.0	88.0
이호 테우 해변(梨湖榭海滩)	84.0	91.0	90.0
사려니숲길(思连伊林荫道)	86.0	95.0	91.0
가로수길(林荫大道)	94.0	92.0	90.0
해파랑길(海波朗路)	65.0	78.0	70.0
교보문고(教保文库)	71.0	75.0	69.0
별룽장(星火集市)	65.0	81.0	76.0
약전골목(药麈一条街)	68.0	94.0	87.0

약령시장(药令市)	61.0	90.0	80.0
진도신비의바닷길 (珍岛神秘海路)	75.0	92.0	89.0
돈내코탐방로(顿乃克探访路)	56.0	79.0	73.0
평균	70.5	84.5	80.3

A유형 문항의 경우, 제시된 관광문화 용어에 대한 용어 이해도의 긍정적 응답 평균은 70.5%로 나타났으나 ‘땅끝 전망대(土末观景台)’(43%), ‘간절곶(艮绝岬)’(45%) 등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던 용어들의 이해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용어 전달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평균은 84.5%로 비교적 높았으나 ‘서래마을(瑞来村)’(62%)과 ‘간절곶(艮绝岬)’(64%) 등이 7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그 밖에, 표현 적절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 평균은 80.3%로 나타났으나 ‘간절곶(艮绝岬)’(59%)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서래마을(瑞来村)’(61%), ‘땅끝 전망대(土末观景台)’(63%) 등도 70% 이하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2개 이상의 평가 항목에서 긍정적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난 ‘간절곶(艮绝岬)’, ‘땅끝 전망대(土末观景台)’, ‘서래마을(瑞来村)’ 등 표제어의 번역어에 대한 새로운 권고안의 제시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예상과 달리 긍정적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연구진이 판단하기에 여전히 문제가 있어보이는 번역어(ex.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釜山电影摄影工作室)¹⁸⁾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한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B유형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8)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대지면적이 23,946.98m²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인 반면, 본조사에서 제시된 번역어 ‘电影摄影工作室’는 비교적 작은 규모의 스튜디오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연구진은 본조사를 통해 이 번역의 적절성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용어 이해도, 용어 전달성, 표현 적절성이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나는 조사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객관식 문항의 한계 등으로 인해 면대면의 심층조사를 통해 이 사례를 면밀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심층 조사에 포함시켰다.

〈표 5〉 본조사 B유형 문항 조사 결과

(응답자: 100명, 단위: %)

용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거문오름	拒文火山丘	拒文峰	拒文岳	拒文山	-
	63.0	16.0	12.0	9.0	-
꽃지해수욕장	花地海水浴场	花地海滩	花地海边	-	-
	58.0	39.0	3.0	-	-
골보쌈 골목	生菜包蚶仔美食街	生菜包蚶仔一条街	生菜包蚶仔街	生菜包蚶仔路	生菜包蚶仔胡同
	51.0	19.0	15.0	9.0	6.0
근대골목	近代胡同	近代街	近代一条街	近代路	-
	42.0	33.0	16.0	9.0	-
제주 올레길	济州偶来徒步道	济州偶来小路	济州偶来路	-	-
	65.0	19.0	16.0	-	-
둘레길	环林步道	杜列步道	山步道	-	-
	56.0	35.0	9.0	-	-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安城男寺党巴吾德儿庆典	安城男寺党巴吾德儿节	安城男寺党巴吾德儿祭	-	-
	44.0	33.0	23.0	-	-
치맥 페스티벌	炸鸡啤酒节	炸鸡啤酒庆典	鸡啤节	-	-
	60.0	29.0	11.0	-	-
전주세계소리축제	全州索里音乐节	全州世界板索里节	全州世界声音节	全州清唱艺术节	-
	49.0	30.0	11.0	10.0	-
절두산 순교성지	切头山殉教遗址	切头山殉教圣地	切头山忠烈祠	-	-
	43.0	33.0	24.0	-	-
학동몽돌해변	鹤洞黑珍珠圆石海水浴场	鹤洞卵石海水浴场	鹤洞黑珍珠圆石海边	鹤洞卵石海边	-
	45.0	32.0	13.0	10.0	-
한옥민박	韩屋民宿	韩屋客栈	韩屋式旅舍	韩屋民泊	-
	41.0	30.0	22.0	7.0	-
코레일 패스	韩国铁路通票	韩国火车通票	韩国火车通行证(KRPass)	韩国通票(KRPass)	-
	37.0	35.0	20.0	8.0	-
한림민속오일시장	翰林民俗五日集市	翰林民俗五日市场	翰林民俗五日集	-	-
	59.0	25.0	16.0	-	-
서울 고속버스	首尔高速巴士客运站	首尔高速客运站	首尔特快巴士站	首尔高速汽车站	-

터미널	46.0	26.0	19.0	9.0	-
펜션	度假民宿	膳宿公寓	別墅酒店	度假村	-
	56.0	26.0	9.0	9.0	-
대장금파크	大长今影视城	大长今主题公园	-	-	-
	56.0	44.0	-	-	-
섬지코지	涉地岬	涉地可支岬	涉地可支	-	-
	70.0	22.0	8.0	-	-
차이나타운	中华街	唐人街	中国城	-	-
	36.0	33.0	31.0	-	-
템플스테이	寺庙体验	寺庙寄宿	寺院寄宿	-	-
	60.0	20.0	20.0	-	-

B유형 문항은 다양한 번역어가 혼재하는 관광문화 용어 전체 또는 후부 요소(ex. ~길, ~축제, ~오름 등)의 수용도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문항이다. 후부 요소 번역의 경우, ‘~오름’은 ‘~火山丘’(63%), ‘~해수욕장’은 ‘~海水浴场’(58%)이 가장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골목이나 길, 축제의 경우 전부 요소의 의미적, 음성적 특성에 따라 선호도가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면대면 방식의 심층 조사를 통한 추가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섬지코지’와 같이 음역을 시도하고자 하는 자연 지명의 경우 후부 요소를 통해 해당 관광지가 어떤 유형의 장소인지를 보여주는 ‘涉地岬’(70%)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한국 관광지의 고유성, 한국 내에서의 한국인 화자들과의 소통성을 고려했을 때 순우리말이 포함된 자연지명 내지는 순우리말이 포함된 인공지명 중 유래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 음역이 바람직한 번역 전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광지명의 음역 번역안에 대한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용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발음의 용이성이나 음의 겸역의 가능성을 고려한 적절한 음역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2 1차 심층조사

상기 본조사 수용도 조사 결과 일부 번역어들이 도착어 표현 상의 문제로 의미 전달에 실패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심층조사에서는 수용도 상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주요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연구진의 번역 대안을 제시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번역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했다. 일괄성과 표준성을 고려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 하에 1차 번역 대안을 제시하였다.

- 1) 용어의 유형과 성격을 고려해 번역할 것.
- 2) 해당 용어의 함의를 도착어 표현에 맞게 충분히 정확히 전달하되 한국 특유 관광문화 용어로서의 고유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할 것
- 3) 한 개념을 나타내는 동일 용어 및 동일 후부 요소에 대해서는 최대한 일관성을 확보할 것

심층조사는 1차와 2차에 걸쳐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10명(19)을 대상으로 초점 집단 면접 형식과 반구조적 면담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먼저 1차 심층조사에서는 본조사에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표제어, 본조사 수용도가 낮은 편은 아니나 현행 번역안의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표제어, 유사 후부요소 번역안 마련을 위해 선별한 표제어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용어 10개와 해당 번역어를 함께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했다. 질문지는 한국어와 중국어 번역안, 용어 관련 사진과 설명을 보여 준 후 번역 적합성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A유형과 한국어 용어, 관련 사진, 설명을 먼저 보여주고, 제시된 복수의 번역안 중 선호 방안을 고르거나 기타 의견을 적도록 하는 B유형으로 설계했다. 1차 심층조사의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1차 선정 표제어 번역에 대한 응답자 의견

유형	한국어 표제어	중국어 번역	의견	1차 조사 후 수정안	
A 유형	1	땅끝 전망대	陆地尽头瞭望台	①적합: 5명, ②부적합: 5명	유지
	2	이호 테우 해변	梨湖铁乌(木筏)海滩	①적합: 8명, ②부적합: 2명	梨湖泰坞(木筏)海滩
	3	도깨비 도로	多怪比路	①적합: 5명, ②부적합: 5명	유지
	4	서래 마을	瑟莱村	①적합: 7명, ②부적합: 3명	유지

19) 이화여대 언어교육원 내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 중인 중국 학생(홍콩, 마카오, 타이완 포함, 한국어 능력 중급 이상) 8명과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중국 학생 2명이 본 연구의 심층조사에 참여했다.

유형	한국어 표제어	중국어 번역	의견	1차 조사 후 수정안
B 유형	5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① 釜山影视城 ② 釜山电影制片厂 ③ ()	①7명 ②1명 ③2명 (기타: 釜山电影制片城, 釜山电影城, 釜山影视基地)	釜山影视城
	6 황학동 도깨비시장	① 黄鹤洞旧货市场 ② 黄鹤洞小鬼市场 ③ ()	①3명 ②0명 ③7명 (기타: 黄鹤洞古玩市场, 黄鹤洞鬼怪古玩市场, 黄鹤洞跳蚤市场, 黄鹤洞二手市集, 黄鹤洞古董百货市场, 黄鹤洞古物市场)	黄鹤洞古玩市场
	7 교보문고	① 教保文库 ② 教保文库书城 ③ ()	①6명 ②4명 ③0명 (기타: 教保书城)	教保文库
	8 골보쌈 골목	① ○○美食街 ② ○○街 ③ ()	①4명 ②4명 ③2명 (기타: 一条街 4명 제시)	○○一条街
	9 약전 골목	① ○○街 ② ○○胡同 ③ ()	①4명 ②3명 ③3명 (기타: 小巷, 老街, 巷, 专卖街)	○○街
10 들레길	① ○○步道 ② ○○路 ③ ()	①7명 ②0명 ③3명 (기타: 小径, 小路, 古道)	○○步道	

A유형에서 연구진은 ‘땅끝 전망대’의 경우 ‘땅끝’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地尽头瞭望台’라고 의미역하였고, 나머지 3개 용어에 대해서는 해당 용어 유형의 특징과 함의를 고려하되 한국 특유 관광문화로서의 고유성을 반감시키지 않도록 ‘테우’, ‘도깨비’, ‘서래’라는 순우리말 요소를 음역하거나 음역 후 대응어를 괄호 병기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땅끝’의 의미역 방안에 대해서는 다소 길고 단조로운 느낌이 들어 좀더 압축적인 표현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陆尽’, ‘岛缘’, ‘地末’, ‘地角’ 등의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이호테우해변’은 현재 ‘梨湖槎海滩’, ‘梨湖木筏海水浴场’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데 ‘테우’라는 향토적 대상이 단순한 ‘뗏목(槎/木筏)’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테우’를 음역 처리한 후 유사 의미를 괄호로 병기하는 새로운 방안[‘铁乌(木筏)’]을 제안하여 수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성

면에서는 큰 무리가 없으나 ‘테’를 음역한 한자 ‘铁’가 금속성 물질을 의미해 통나무로 만든 ‘테우’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우’에 해당하는 ‘乌’는 보다 예스러운 어감이 드는 ‘乌’로 대체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도깨비도로’와 ‘서래 마을’의 경우는 ‘도깨비’와 ‘서래’라는 한글의 고유성 유지와 음성적 소통성을 고려하여 한글 발음에 보다 가까운 한자들을 채택한 ‘多怪比路’와 ‘瑟萊村’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B유형은 표제어 관련 사진 제시 및 상세 구두 설명을 거쳐 두 가지 항목 중 보다 적합한 번역안을 고르도록 했으며, 필요 시 또 다른 번역 대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황학동 도깨비 시장’은 각각 그대로 직역하여 ‘电影摄影工作室’, ‘小鬼市场’라고 옮길 시 중국 현지인들에게 실제 장소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가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영화 제작 세트장임에 반해 ‘电影摄影工作室’는 협소한 촬영 작업실 정도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골동품, 중고물품을 다양하게 취급하는 ‘황학동 도깨비 시장’이 ‘小鬼市场’으로 옮겨지면 부정적인 어감만 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는 그 규모와 특징을 감안하여 ‘釜山影视城’라고 번역하고, ‘황학동 도깨비 시장’은 ‘도깨비’라는 어휘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 시장의 성격과 판매 품목의 다양성이 보다 도드라지도록 ‘黄鹤洞古玩市场’라고 번역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교보문고’는 ‘文库’가 중국에서 ‘문서 창고’, ‘서고’ 등의 의미로 상용되므로 이를 그대로 직역할 시 수용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조사 결과 ‘교보문고’ 자체가 고유명사인 데다 ‘文库’라는 어휘를 단서 삼아 ‘책이 있는 곳’이라는 연상이 가능하므로 직역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동일 후부요소의 일관된 번역안 도출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골목’, ‘~거리’, ‘~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골목’이나 ‘거리’를 후부요소로 취하는 관광문화 용어는 크게 곱창 골목, 장충동 족발 거리, 골보쌈 골목,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등 특정 먹거리 골목(거리)과 근대 골목, 약전 골목, 벽화 골목 등 특정 주제 위주로 구성된 골목(거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차 심층조사에서는 각 유형의 대

표격으로 ‘굴보쌈 골목’과 ‘약전 골목’을 선정해 적절한 번역안을 선택하도록 했다. 번역안 중 하나였던 ‘美食街’는 특정 음식 하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먹거리 음식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의미하는 단독 어휘이므로 후부요소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특정 먹거리를 파는 음식점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가지적으로 보여 주기에는 ‘一条街’가 더 적합하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골목이나 거리의 폭 또는 형태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음식명+一条街’를 일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약전골목’ 등 특정 주제 골목을 지칭하는 ‘골목(거리)’에 대해서는 중국 북방 옛 골목이 연상되는 ‘胡同’보다 ‘街’가 더 적합하며, 특히 전통적인 요소를 접목해 꾸미거나 옛 모습을 재현한 거리의 경우 ‘老街’라는 구체적 어휘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또한 올레길, 둘레길, 해파랑길, 자락길, 갈매길, 이바구길 등 국내 도보 여행코스 명칭들의 공통 후부 요소인 ‘~길’은 현재 ‘小路’, ‘路’, ‘步道’, ‘徒步道’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다. 이 중 ‘小路나 ‘路’는 다양한 도보 코스 형태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步道’가 가장 보편적이고 적절한 대안이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3.3 2차 심층조사

상기 1차 심층조사 내용들을 근거로 연구진은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을 포함하는 관광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의 고유성과 소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숙박, 교통, 쇼핑, 식사 관련 생활 정보 용어와 축제, 도보 여행길, 공연 등을 포함한 체험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해당 성격과 특성 부각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번역한다는 기본 번역 원칙을 확정했다. 이러한 원칙을 염두에 두고 2차 심층조사에서는 최종 20개 표제어와 번역안을 제안하여 수용도 점검 작업을 진행했다. 이들 표제어에는 1차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표제어, 1차에서 거론되지 않았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표제어, 동일 후부요소가 포함된 복수의 유사 표제어들이 포함되었다. 이번에는 한국어 표제어와 중국어 번역어를 사진, 설명과 함께 보여주고 적합 여부를 묻는 유형으로만 진행했다. 다음은 2차 심층조사 후 도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7〉 2차 선정 표제어 번역에 대한 응답자 의견

한국어 표제어	중국어 번역	의견	최종안
찜질방	汗蒸房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三温暖, 汗蒸幕)	유지
노래방	K歌房	①적합: 5명, ②부적합: 5명 (기타: 卡拉OK(房), 唱K房, 练歌房, KTV)	练歌房
포장마차	帐篷酒吧	①적합: 3명, ②부적합: 7명 (기타: 帐篷小酒摊(小吃摊), 帐篷布档(酒档), 帐篷马车, 帐篷摊档, 移动酒馆, 帐篷小摊)	帐篷小摊
이호 테우 해변	梨湖泰坞(木筏)海滩	①적합: 10명, ②부적합: 0명 (기타: 없음)	유지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釜山影视城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釜山影视基地, 影都)	유지
황학동 도깨비시장	黄鹤洞古玩市场	①적합: 10명, ②부적합: 0명 (기타: 없음)	유지
교보문고	教保文库	①적합: 10명, ②부적합: 0명 (기타: 없음)	유지
굴보쌈골목	生菜包蚶仔一条街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生菜包蚶仔美食一条街)	유지
장충동족발거리	奖忠洞酱猪蹄一条街	①적합: 6명, ②부적합: 4명 (기타: 奖忠洞猪蹄街, 奖忠洞猪蹄一条街, 奖忠洞猪蹄街, 奖忠洞酱猪蹄美食一条街)	유지
약전골목	药店街	①적합: 2명, ②부적합: 8명 (기타: 韩药街, 药材街, 韩方药街, 传统药街)	韩药街
근대골목	近代街	①적합: 4명, ②부적합: 6명 (기타: 近代胡同, 近代老街, 近代老文化街)	近代老街
로데오거리	罗德奥街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罗德奥时尚街, 罗德奥商店街)	유지
올레길	偶来步道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偶来小径)	유지
해파랑길	海波朗步道	①적합: 5명, ②부적합: 5명 (기타: 海波朗沿海步道, 波浪道/路, 海岸步道, 海滨步道, 海波朗海岸线步道, 海波浪沿海步行路线, 海波浪步道)	유지
지리산 둘레길	智异山环山步道	①적합: 9명, ②부적합: 1명 (기타: 智异山环山道, 环山路)	유지
서울 둘레길	环首尔步道	①적합: 7명, ②부적합: 3명 (기타: 首尔观景步道, 首尔漫游步道, 漫游首尔步道, 首尔环城路, 观景步道)	유지

한국어 표제어	중국어 번역	의견	최종안
남한산성 둘레길	南汉山城环古城步道	①적합: 3명, ②부적합: 7명 (기타: 南汉山城环城步道, 南汉山古城步道, 南汉山古城步道, 南汉山古城步道, 环南汉山城步道)	环南汉山城步道
섬진강 둘레길	蟾津江环江步道	①적합: 3명, ②부적합: 7명 (기타: 蟾津江沿江步道, 蟾津江沿河步道, 蟾津江边步道, 蟾津江临江步道, 蟾津江步道)	蟾津江沿江步道
전주세계소리 축제	全州国际索里音乐节	①적합: 7명, ②부적합: 3명 (기타: 全州国际传统曲艺节, 全州国际传统声音乐节, 全州国际音乐艺术节, 全州国际板索里音乐节)	유지
진도 신비의 바닷길	珍岛神奇海路	①적합: 5명, ②부적합: 5명 (기타: 珍岛神秘分海路, 珍岛奇幻分海路, 珍岛神秘海路, 珍岛分海路)	珍岛神秘分海路

이중 1차 조사 결과를 반영해 번역안을 제시했던 ‘이호 테우 해변’,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황학동 도깨비 시장’, ‘교보문고’는 모두 매우 높은 수용도를 보였다.

생활정보 유형에 속하는 ‘찜질방’, ‘노래방’, ‘포장마차’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 방문 시 꼭 체험해보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 특징과 기능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도록 번역할 필요가 있다. 중국 내 비슷한 장소를 지칭하는 통용어를 최대한 활용하되 대응어의 결과가 원래 의미를 완전히 포섭하지 못하거나 한국 고유의 이미지로 연계되지 못할 시에는 의미역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번역에 대해 ‘찜질방(汗蒸房)’은 대체적으로 수용도가 높았으나 ‘노래방(K歌房)’은 중국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이유로, ‘포장마차(帐篷酒吧)’는 술과 안주류만을 취급하는 천막 마차 모양의 식당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양한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다. 결과적으로 ‘노래방’은 현지 독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표현인 ‘练歌房’으로, ‘포장마차’는 판매 품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보다 형태적 특성에 초점을 둔 ‘帐篷小摊’으로 확정되었다.

체형 유형인 ‘전주세계소리축제(全州国际索里音乐节)’는 순우리말인 ‘소리’를 음역 처리하되 한국음악을 비롯한 전세계 전통음악이 어우러지는 축제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고자 ‘음악’이라는 속성 정보를 부연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진도 신비의 바닷길(珍岛神奇海路)’의 경우 어감상 ‘神奇’보다는 ‘神秘’가 더 어울린다는 의견과 ‘海路’보다는 물이 빠지면서 바다가 갈리는 모양을 보다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分海路’가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되어 ‘珍岛神秘分海路’로 수정하였다.

다음으로 유사 속성 후부요소인 ‘~골목/거리’의 최종 번역안을 수렴하고자 특정 음식을 주로 파는 먹거리 골목들의 후부요소 번역은 ‘一条街’로, 특정 주제로 특성화된 골목(거리)의 후부요소는 ‘街’를 일괄 적용하여 수용도를 점검했다. 전자의 사례인 ‘굴보쌈 골목(生菜包蚶仔一条街)’과 ‘장충동 족발 거리(奖忠洞酱猪蹄一条街)’는 대체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후자의 사례로는 ‘근대골목(近代街)’, ‘약전골목(药店街)’, ‘로데오거리(罗德奥街)’ 3개 표제어를 선정하여 의견을 물었다. 의견 수렴 결과, ‘근대골목(近代街)’은 옛 모습을 재현한 복고풍 골목에 가까우므로 현대적인 느낌의 ‘街’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는 전통적이고 예스러운 분위기로 조성된 골목의 경우 후부요소를 ‘老街’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약전골목(药店街)’은 ‘부적합’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약전’을 ‘药店’으로 번역한 것에 기인한 결과였다. 약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재상, 한약, 한의원들도 모여 있는 곳을 고려할 때 ‘药店街’보다는 ‘韩药街’, ‘药材街’, ‘韩方药街’ 등이 낫다는 의견에 따라 이는 ‘韩药街’로 수정하였다. ‘로데오 거리’는 외래어인 전부요소는 음역하고 후부요소로 ‘街’를 적용했는데, 대체적으로 적절하다는 반응이었다.

또 다른 후부요소 ‘~길’의 경우 1차 조사에서 도출했던 번역안 ‘~步道’를 ‘올레길(偶来步道)’과 ‘해파랑길(海波朗步道)’에 적용하여 응답자들의 최종 의견을 확인했는데, 적절하다는 평이 주를 이루었다. 다만 ‘해파랑길’의 경우 전부요소를 ‘海岸’, ‘沿海’, ‘海滨’ 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일부 존재했으나 ‘해파랑’이 지닌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어 음역 처리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산이나 도시, 옛 고성의 둘레를 돌거나 강을 끼고 주변을 따라 걷도록 조성된 길을 ‘둘레길’이라고 부른다. ‘둘레길’의 경우는 ‘步道’로 단순 처리 시 ‘특정 대상 또는 장소를 중심에 두고 그 주변을 따라 돈다’는 본연의 특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2차 조사에서는 추가로 ‘지리산 둘레길(智异山环山步道)’, ‘서울 둘레길(环首尔步道)’, ‘남한산성 둘레길(南汉

山城环古城步道’, ‘섬진강 둘레길(蟾津江环江步道)’ 등 4가지 유형의 둘레길 관련 표제어에 대해 각기 다른 번역안을 제시하여 응답자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연구진은 ‘둘레길’이 특정 대상 주위를 따라 산책하는 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环+(대상)+步道’의 형태를 일괄 적용한 번역안을 제시했다. ‘지리산 둘레길’, ‘서울 둘레길’은 수용성이 비교적 높았으나, ‘남한산성 둘레길’은 번역어가 너무 길다는 의견에 따라 보다 압축적인 ‘环南汉山城步道’로 수정했다. ‘섬진강 둘레길’은 원형의 둘레를 걷는다고보다 강을 끼고 강변을 걷는 형식이므로 ‘环江步道’보다는 ‘沿江步道’나 ‘江边步道’, ‘临江步道’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레길’을 번역할 시에는 전부요소 지형의 특성과 길의 실제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결과다. 이에 따라 전부요소 대상이 산, 도시, 고성일 경우는 ‘环+(대상)+步道’로, 강이나 하천일 경우는 ‘沿+(대상)+步道’로 의미역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4. 번역 표준화 원칙 및 개선 방안

관광문화 용어 번역은 ‘용어’로서의 기능성과 홍보 주체의 의도, 홍보 대상의 고유성, 외국인 방문자들과의 소통성 등을 동시에 고려하여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하는 정밀한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의 문제 실태 조사와 수용성 점검을 위한 본조사, 적절한 번역안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사와 논의를 거치면서 향후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우선 관광지명은 지명의 고유성과 내외국인 간 소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생활 정보와 체험 관련 용어는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해당 성격과 특성 부각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되 한자어, 순우리말, 외래어(혹은 외국어) 요소에 따른 상세 번역 지침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 1) 한자어: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직역하되 한자어 차용 시 다른 의미로 해석되거나 의미 파악이 어려울 경우 중국어로 통용되는 표현으로 대응역 혹은 의미역함

- 2) 순우리말: 자연 지명은 음역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자연 지명 외에는 대응어가 있으면 대응역, 대응어가 없을 경우 의미, 기원 등을 살려 의미역함. 단 의미 유래 파악이 어렵거나 대응역으로 전통성과 고유성이 상쇄될 경우 음역 처리도 가능함(필요시 해당 용어의 속성을 병기)
- 3) 외국어·외래어: 대응역 또는 의미역하되 기관명 등 고유명사일 경우 외국어·외래어 그대로 표기 가능함(필요시 해당 용어의 속성을 병기)

상기 원칙에 근거하여 현행 관광문화 용어의 개선 권고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4.1 관광지명의 번역 개선 방안

한자어로 구성된 자연지명은 기본적으로 한자를 직역하되 그 결과가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된다면 대응역이나 의미역으로 전환한다(예: ‘호미곶(虎尾串)’의 ‘곶(串)’을 ‘岬’로 대체).

자연지명 중 순우리말 요소가 포함된 용어는 크게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구분되는 경우와 구분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므로 유형에 따라 번역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전자라면 순우리말로 된 전부요소는 기본적으로 음역하며, 후부요소는 대응역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후부요소라면 가능한 일관되게 번역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거문 오름’, ‘다랑쉬 오름’ 등의 경우 순우리말 전부요소는 한국어 발음과의 유사성을 고려해 음역하고, 후부요소인 ‘오름’은 일괄 ‘火山丘’로 처리하여 ‘格门火山丘’와 ‘达朗许火山丘’로 제안했다. 또한 심층조사에서 확인했듯이 음역안으로의 전환이 중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음을 감안하여 ‘이호테우해변’처럼 순우리말 음역 후 필요에 따라 의미를 괄호로 병기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하다. 또한 ‘섬지코지(涉地可支)’ 등과 같이 전부요소와 후부요소가 구분되지 않는 자연지명은 발음의 유사성에 따라 전체 음역 방안을 제안한다.

〈표 8〉 관광지명(자연지명) 개선 권고 방안 사례

	국문 표제어	수집 번역 용례	권고안	
한자	호미곶	虎尾串	虎尾岬	
순우리말	전 후 부 요소 구 분 有	사려니 숲길	思连伊林荫道	思连伊林道
		거문 오름	拒文岳	榕门火山丘
		다랑쉬 오름	月郎峰	达朗许火山丘
		이호 태우 해변	梨湖木筏海水浴场; 梨湖槎海滩	梨湖泰坞(木筏)海滩
	전 후 부 요소 구 분 無	섬지코지	涉地岬; 涉地可支	涉地可支
	쇠소각	牛沼河口; 牛沼端	绥素嘎	

인공지명의 경우도 ‘절두산 순교 성지’나 ‘가회 민화 공방’과 같은 한자어는 직역을 원칙으로 하지만 한자역 결과 의미 전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대응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문 관광 단지’의 ‘단지’는 한자 그대로라면 ‘团地’라고 옮겨야 하지만 중국 현지에서는 ‘园区’라는 대응어가 통용되므로 이를 채택하였다. 신사동에 위치한 ‘가로수길’의 경우 현행 번역에서는 ‘街路树路’, ‘林荫大道’, ‘林荫道’ 등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林荫大道’라고 번역되면 ‘가로수길’이라는 지명이 지닌 본연의 고유성이 상쇄되어 단순히 ‘가로수가 있는 도로’라고 인식될 수 있으므로 한자어를 직역한 ‘街路树街’를 최종 개선안으로 채택하였다.

인공지명의 순우리말 요소는 대응 표현이 있거나 의미, 기원 등을 파악하여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경우 대응역 혹은 의미역으로 옮기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대표 사례로 ‘땅끝전망대(地末瞭望台)’, ‘세빛섬(三光岛)’, ‘학동 몽돌해수욕장(鹤洞黑珍珠圆石海水浴场)’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순우리말이라 할지라도 의미 유래 파악이 안 되거나 의미역 시 지명 특유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상실하게 된다면 음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래마을’은 ‘서래’가 붙게 된 유래가 문헌마다 차이가 난다. 때문에 의미역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글 발음과의 유사성을 최대한 고려한 음역안인 ‘瑟莱村’을 채택했다. ‘도깨비 도로’의 경우 ‘도깨비’가 한국 민속 신앙에만 존재하는 고유 상징물이라는 점

을 감안하여 지명 함의가 지나는 특유성과 음성적 소통 등을 고려하여 음역방안인 ‘多怪比路’로 제안하였다.

외국어나 외래어 요소는 대응역으로 처리하여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三星创新博物馆)’, ‘부산 영화촬영 스튜디오(釜山影视城)’과 같이 번역하였다. 단, 필요에 따라 ‘비프 광장(BIFF广场)’이나 ‘프로방스 마을(普罗旺斯小镇)’과 같이 외국어·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하거나 음역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할 것이다.

〈표 9〉 관광지명(인공지명) 개선 권고 방안 사례

	국문 표제어	수집 번역 용례	권고안
한자	절두산 순교 성지	切头山忠烈祠; 切头山殉教圣地	切头山殉教圣地
	가회 민화 공방	嘉会民间绘画研习会	嘉会民画工坊
	보문 관광 단지	普门旅游区	普门旅游园区
	가로수 길	街路树路; 林荫大道; 林荫道	街路树街
순우리말	땅끝 전망대	土末观景台	地末瞭望台
	학동몽돌해수욕장	鹤洞黑珍珠圆石海水浴场; 鹤洞卵石海边; 鹤洞黑珍珠卵石海边	鹤洞黑珍珠圆石海水浴场
	세빛섬	人工浮岛“三岛”; 三岛(somesevit)	三光岛
	서래 마을	瑞来村	瑟莱村
외래어	도깨비 도로	神奇之路	多怪比路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	三星创新博物馆	三星创新博物馆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	釜山电影摄影工作室	釜山影视城
	프로방스 마을	普罗旺斯村; 普罗旺斯小镇	普罗旺斯小镇

4.2 생활정보 및 체험 용어의 번역 개선 방안

‘생활정보’ 용어는 사용자들이 여행 중 의식주 해결, 교통수단 및 편의시설 이용에 있어 실제 필요한 정보들이므로 더욱 정확하고 사실적인 전달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자어는 한자 직역이 우선이나 정확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면 해당 용어의 속성을 부가하거나 대응역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례로

‘약전골목’은 기존 책자와 사이트에서 ‘药塵一条街’라고 번역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 결과 수용도와 전달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함에 따라 ‘韩药街’라고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약령시’나 ‘한옥민박’의 경우도 ‘시’를 ‘市’, ‘민박’을 ‘民泊’라고 그대로 직역할 시 도착어 사용자들의 이해에 혼선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각각 ‘药令市场’과 ‘韩屋民宿’로 수정 권고하였다.

순우리말이나 외국어, 외래어는 대응역이나 의미역으로 기본 처리하며, 해당 용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번역한다. ‘별롱장’은 기존에 ‘星火集市’라고 번역되었으나 한 달에 두 번 2시간가량만 열리는 반짝 장터로 수제 먹거리나 공예품 등을 주로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集市’보다는 ‘创意集市(市集)’에 더 가까워 ‘星火创意集市’라는 개선안을 채택하였다. ‘황학동 도깨비 시장’은 시장의 정보나 분위기, 취급품목이 더 드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현지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黄鹤洞古玩市场’을 개선안으로 제안한다. 반면 용어 특성 상 속성을 부가하거나 음역 또는 로마자 표기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사례들도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온돌’을 ‘暖炕’이라는 대응어 앞에 ‘韩式(한국식)’이라는 부연 어휘를 삽입하여 ‘韩式暖炕’이라고 하거나 ‘T-Money’에 ‘卡’라는 구체적인 형태 속성 어휘를 더해 ‘T-Money卡’라고 제안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생활 정보 관련 용어들 중 유사한 속성의 후부요소들은 최대한 일관된 번역어를 적용하였다. 먹거리 중심의 골목은 ‘장충동 족발 거리(奖忠洞酱猪蹄一条街)’,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议政府火腿肠锅一条街)’, ‘곱창골목(肥肠一条街)’ 등과 같이 후부 요소를 ‘一条街’로 일관성 있게 적용했으며, 특정 주제 및 품목 위주의 골목은 ‘로데오 거리(罗德奥街)’, ‘커피거리(咖啡街)’ 등 후부 요소를 ‘街’로 통일하되 고풍스럽고 예스런 분위기를 특성화해 조성한 골목/거리라면 필요에 따라 ‘老街’라는 구체적 표현을 적용하였다.

〈표 10〉 생활정보 용어 개선 권고 방안 사례

	국문 표제어	수집 번역 용례	권고안
한자	약령시	药令市; 药令市场	药令市场
	포장마차	帐篷酒吧; 帐篷吧; 大排档	帐篷小摊
	한옥민박	韩屋客栈; 韩屋民宿; 韩屋式旅舍	韩屋民宿

	국문 표제어	수집 번역 용례	권고안
순우리말	노래방	KTV	练歌房
	온돌	韩式地暖; 地热; 暖炕	韩式暖炕
	별롱장	星火集市	星火创意集市
	황학동 도깨비 시장	黄鹤洞小鬼市场; 黄鹤洞妖怪市场	黄鹤洞古玩市场
	약전 골목	药塵一条街	韩药街
	근대 골목	近代胡同	近代老街
	로데오거리	罗德奥街; 罗德奥时装街	罗德奥街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议政府部队锅一条街	议政府火腿肠锅一条街
	장충동 족발 골목	奖忠洞猪蹄餐厅街; 奖忠洞猪蹄(猪脚)街; 奖忠洞猪蹄一条街	奖忠洞酱猪蹄一条街
	곱창 골목(거리)	小肠一条街	肥肠一条街
외래어	서울 시티 투어 버스	首尔城市观光巴士; 首尔市区旅游巴士	首尔市区旅游巴士
	티머니	T-Money	T-Money卡

‘체험’ 분야 관광문화 용어 역시 정보 전달력은 물론 해당 용어의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상기 원칙에 의거하여 한자어의 경우 한자 직역을 기본으로 하며, 의미 전달에 문제가 생길 시에 한해 대응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순우리말이나 외국어, 외래어는 기본적으로 대응역 또는 의미역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용어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번역해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속성 정보를 부가하거나 음역 처리가 가능한데, ‘해파랑길(海波朗步道)’과 ‘보령 머드 축제(保宁美容泥漿节)’가 그러한 사례다. ‘해파랑길’은 ‘떠오르는 해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이라는 뜻이지만 이러한 의미를 모두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 음역과 대응역이 혼합된 ‘海波朗步道’를 채택하였다. ‘파도’라는 의미의 ‘海波’가 음성적으로 ‘해파’라는 한글 발음과 유사한 데다 ‘랑’을 음역한 한자 ‘朗’에 ‘밝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 의미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보령 머드 축제’는 축제의 특성과 매력도를 좀 더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美容’이라는 속성 정보를 부가하였다.

체험 용어 역시 유사한 속성의 후부요소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축제/페스티벌’은 ‘节’나 ‘庆典’으로, ‘~길’은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토대로 ‘步道’로 일괄 적용하였다. 다만 ‘둘레길’의 경우 그 형태나 특성을 감안하여 ‘环+(대상)+步道’ 혹은 ‘沿[临]+(대상)+步道’와 같이 구체화하는 것이 의미전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표 11〉 체험 용어 개선 권고 방안 사례

	국문 표제어	수집 번역 용례	권고안
순우리말	찜질방	汗蒸房	汗蒸房
	올레길	偶来小路, 偶来路	偶来步道
	갈매길	海鸥路	嘎迈步道
	강경것갈축제	江景海鲜酱节; 江景发酵海鲜酱节	江景鱼虾酱节
	전주 세계 소리 축제	全州索里音乐节	全州国际索里音乐节
	서울 둘레길	山步道; 首尔漫步路	环首尔步道
	지리산 둘레길	智异山徒步小路; 智异山步道	智异山环山步道
	진도 신비의 바닷길	珍岛神奇海路	珍岛神秘分海路
	해파랑 길	海波朗路	海波朗步道
외래어	춘천 국제 마임 페스티벌	春川国际哑剧节	春川国际哑剧节
	보령 머드 축제	保宁美容泥浆节	保宁美容泥浆节

5. 결론

관광문화 용어는 크게 문화용어의 범주 안에 속하는 용어들로 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해당 외국어 사용권 원어민이 수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관광문화 용어에 대한 번역은 우리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발신력의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써 용어로서의 활용 가치와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하며 이를 일관성 있게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을 소개하는 국내외 한국 관광 안내 자료 내에 수록된

관광용어 번역어 실태를 분석한 후 현행 번역어에 대한 중국어권 원어민의 수용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번역 표준화 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른 올바른 번역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지 발간 한국 관광 안내 책자와 한국관광공사 홍보 책자 및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의 주요 관광문화 용어 번역어를 수집하여 총 1,251개 규모의 DB를 구축하였으며, 919개 표제어를 대상으로 실태분석을 진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주요 관광문화 용어를 중심으로 수용성 점검을 위한 본조사, 적절한 번역안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를 거쳐 번역 표준화 원칙 및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관광문화 용어 중국어 번역 표준화 원칙은 관광지, 생활 정보, 체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제시하였다. 자연지명, 인공지명, 문화재명 등을 포함하는 관광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의 고유성과 내외국인 간 소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숙박, 교통, 쇼핑, 식사 등에 관한 생활 정보 관련 용어와 축제, 도보 여행길, 공연 등을 포함한 체험 관련 용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 및 해당 성격과 특성 부각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번역함을 기본 전제로 삼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립된 번역 원칙 및 권고안은 향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보급되어 주요 관광문화 용어 표준 번역안 검색 시스템 운영 활성화, 지자체 및 정부기관 등의 관광문화 용어 관련 번역 생산 참여자를 위한 번역 지침 제공, 현지 원어민 대상 홍보, 관광문화 분야 전문 번역사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권인경 (2013) 「문화소 번역 방법 연구 - 제주도 관광 안내텍스트를 중심으로」, 『동화와 번역』, 25: 37-59.
 금지아 (2018) 「한국 중요무형문화재 명칭의 중국어 번역 방안 연구」, 『번역학연구』, 19(3): 43-62.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 전략: 부산 관광지 안내 표지판 및 책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7(2): 31-51.

정일영, 정의상 (2011) 「광주-전남 관광 문화포털 ‘남도코리아’의 문화소 번역 전략의 적절성 문제」, 『번역학연구』, 12(1): 239-262.

김혜림 (2014) 「문화용어 번역 실태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김혜림 (2017) 『『한국세시풍속사전』의 문화용어 한중번역 특징 연구』, 『통역과 번역』, 19(2): 55-78.

김혜림, 모혜연, 장애리 (2018) 「미술용어의 중국어 번역실태 조사 및 번역 방안 연구」, 『중국어문학지』, 64: 279-309.

김효중 (2004) 『새로운 번역을 위한 패러다임』, 서울: 푸른사상사.

韓國旅游發展局 (2017) 『韓國旅游指南』, 韓國旅游發展局.

澳大利亞LonelyPlanet公司 (2017) 『Lonely Planet孤獨星球:韓國(2016年版)』, 中國地圖出版社.

澳大利亞LonelyPlanet公司 (2015) 『LonelyPlanet孤獨星球:首爾』, 中國地圖出版社.

墨刻編輯部 (2016) 『韓國自助游』, 人民郵電出版社.

《親歷者》編輯部 (2017) 『零元游韓國』, 中國鐵道出版社.

《圖行世界》編輯部 (2013) 『全球最美的地方特輯: 韓國』, 中國旅游出版社.

참고 사이트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관광용어 외국어 용례사전
<http://kto.visitkorea.or.kr/kor/translation/main.kto>

문화재청 http://www.cha.go.kr/cha/idx/Index.do?mn=NS_01

[Abstract]

A Study on the Acceptance of Chinese Translation of Tourism and Cultural Terms

Kim, Hyerim · Kang, Kyoung Yi · Shin, Da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guideline to standardize Chinese translation of Korean tourism and cultural terms and propose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guideline, by reflecting the result of investigation on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translations regarding tourism and cultural terms in Korea travel guide books published overseas and acceptance of the terms among native Chinese speakers.

The procedure of the study can be roughly broken down into following four stages: ① form a database by collecting tourism and cultural terms from Korea travel guide books published overseas an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KTO), as well as the online data presented by KTO, local governments, and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CHA); ② review and categorize problem cases in existing translations; ③ investigate the acceptance level of the translated terms among the native Chinese speakers through online survey and one-to-one in-depth study; ④ propose standardization guidelines and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nline survey and one-to-one in-depth study.

▶ Key Words: Tourism and Cultural Terms, acceptance, standardization guideline, Korean-Chinese translation

▶ 주제어: 관광문화 용어, 수용성, 표준화 방안, 중한번역

김혜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교수

hyerim@ewha.ac.kr

관심분야: 문화번역, 통번역교육, 대조언어학, 어휘론

강경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전임강사

jiongli1011@ewha.ac.kr

관심분야: 문학번역, 문화번역, 번역교육, CAT, 번역과 이데올로기

신다영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전임강사

printempo@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번역, 통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19년 8월 10일

심사완료일: 2019년 8월 28일

게재확정일: 2019년 9월 16일